

다문화가정 청소년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박 은 민¹⁾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는 김창대(2002)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남녀 중학생 83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41명, 통제집단 42명으로 배정하여, 사전-사후-추후 검사 설계로 진행하였다. 집단상당은 4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0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각 회기별 50분씩 주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효과 여부와 프로그램 효과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분석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적응유연성 집단상당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증진에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 모형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청소년,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 이 연구는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2S1A5A8024110).

1)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E-mail : empark@dsu.ac.kr)

I. 서 론

우리사회는 국제결혼 증가와 해외 인구 유입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시각을 지니고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주류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편입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다(양계민, 2010).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다문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한국 내 다문화 자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5년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수는 6,121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24,745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3년 기준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66,536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31.9%, 중학생 24.5%, 고등학생 27.6%, 대학생이 16.0%(통계청, 2013)로 중·고 청소년 비율이 52.1%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청소년 비율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2014년 4월 기준 보고에 따르면 다문화 초·중·고교생이 6만 7806명으로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1%를 넘어섰다(국민일보, 2014.10.12).

다문화 자녀들은 생애주기 발달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형성과 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외모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김영춘, 이관식, 2013; 전경숙, 2008). 또한,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발달 장애, 학교 부적응, 정체성 혼란, 학습 부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정혜영, 정옥분, 2011).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된 다문화 자녀들은 학령기에 학업부진, 일탈행동을 경험하기 쉽고, 성인기에는 낮은 보수의 직업선택, 취약한 건강상태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황여정, 2014). 그러므로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다문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열악한 가정환경, 상대적 교육기회 박탈, 부정적 사회인식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어(임선모, 2012), 다문화 가정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모두가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목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란 개념이 설명되고 있다(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김보영, 2010;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적응유연성이란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서 기능 수행

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감정적 슬픔이나 고통을 회복하여(권일남, 김영철, 2006), 이전 적응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Masten, 2001). 적응유연성은 고정불변이 아니어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황여정, 2014).

Masten(2001)은 인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발달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분석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소 노출 시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박현선, 1998; Garmezy, 1985), 스트레스가 많은 부정적 영향들을 경감시켜 적응유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김진아, 안귀여루, 2010).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더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호요인은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위험요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홍정미(2008)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호요인은 자존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백지숙과 김진 및 정효경(2014)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기술을 보호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구한 김미승(2002)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택호(2004), Rutter(1979)와 Garmezy (1985)는 자아존중감을 보호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적응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측면의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을 설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부정적인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높은 불안 수준을 나타내어 대인관계 형성이 어렵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불안 수준이 낮아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애경, 2008).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숙 외, 2014).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학교적응 유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인, 2010; 백지숙 외, 2014; 정행준, 2011).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과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의사소통은 상대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교류가 확대된다(노충래, 홍진주, 2006).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갈등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이순비, 2010).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적

응력이 높았으나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적응력이 낮았다(은선경, 2010). 다문화 교사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측면은 자아존중감 증진과 관계형성을 위한 자기표현 능력 향상이었다(박은민, 2013).

이와 같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표현하는 자기표현 능력은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식이다. 자기표현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솔직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자기존중의 측면과 타인에게 독선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타인존중 표현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이다(임미경, 2006).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한 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하선경, 2006), 자기표현에 문제가 있어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박은민, 2013). 실제 의사소통 시 자기표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김언숙, 2008; 이순비, 2010). 다문화 자녀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원활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숙 등, 2014).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 생각,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 능력 함양은 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바람직한 발달이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적응 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고홍월, 황매향, 강유임, 2010; 김미선, 2009; 이정우, 2012)가 대부분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다문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소수이다(안권순, 2009).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모 국제 결혼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으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당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에게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한 후,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된다면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기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김창대(2002)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목표수립, 2단계 프로그램 구성, 3단계 예비연구,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모형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1단계는 목표수립 단계이다. 첫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단계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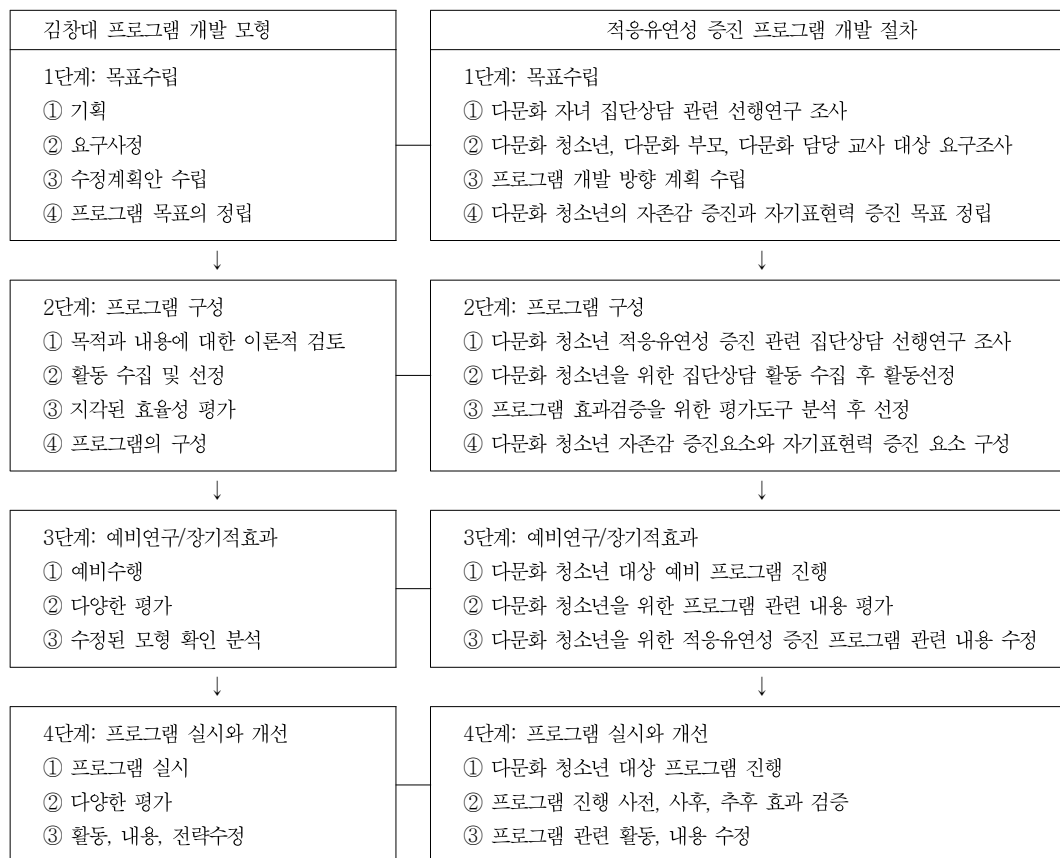


그림 1. 김창대(2002)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근거한 개발절차 과정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대상은 다문화 청소년 11명, 다문화 어머니 6명, 다문화 담당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요구조사는 심층면접 형식으로 1시간에서 2시간씩 3회 정도 실시하며 어려움, 기대, 바람, 요구사항 등의 질문을 하였으며, 다문화 어머니 요구조사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기대, 학교에 대한 기대와 자녀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해 집단 인터뷰를 3시간 진행하였다.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측면은 1) 자신감 갖기 2) 친구관계 의사소통 잘하기 3) 특별활동 수업 참여였으며, 다문화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는 1) 자신감 갖고 생활하기 2)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하기 3) 학교에서 공부 외에 다양한 특별활동 참여하기였으며, 다문화 교사가 갖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대는 1) 자신의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감 갖기 2)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의사표현능력 함양 3) 엄마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갖기였다.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어머니, 다문화 교사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일반학생과 함께 편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박은민, 2013). 다문화 학생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이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집단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피드백이 많아 일반 청소년들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요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과 문화를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

소년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 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시간 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대한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들만을 위한 다문화 교육보다는 일반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다문화 공동 교육이 필요하다.

2단계는 프로그램 구성단계이다. 1단계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목표 확인 후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단계는 목적, 목표, 필요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하위요소를 선정하고, 하위요소 안에 회기를 배정하고, 회기 순서를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문헌고찰을 통해 다문화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검토와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어머니,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를 범주화한 자료에 기초하여 8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3단계는 예비연구 단계이다. 구성된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논리적 연결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의 타당화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심리전공 교수 2인과 상담심리전문가 1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 내용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진 자신들의 자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예비연구 과정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7명과 일반 청소년 3명을 포함한 총 10명에게 실시한 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수정 사항은 참여자들이 친밀감 형성과 관계 형성 시간이 필요하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에 더 많이 참

표 1.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요

회기	주제 및 내용	목적	목표
1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하기 - 별칭 짓고 자기소개하기	· 프로그램 설명 및 안내 · 집단구성원 상호간 친밀한 관계형성	관계형성
2	타인을 알아가며 관계 형성하기 - 인터뷰 활동하기	· 인터뷰 활동을 통해 친밀감 형성하기	자기표현/ 관계형성
3	자기자랑하기 - 가방에 자랑 쪽지 작성 후 넣기	· 자기 긍정적 측면을 찾기 · 타인 앞에서 고백하기	자존감향상
4	다양한 감정 인식하기 - 감정카드 게임	· 자기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자기표현
5	행복한 얼굴 그리기 - 풍선에 표현하기	· 행복한 시간 떠올리기 · 긍정적 경험 표현하기	자존감향상
6	자기주장적 표현 훈련 - 소극적, 공격적, 주장적 행동 인식	· 자기 권리 알고 주장적 표현연습 · 올바른 자기표현 연습	자기표현
7	나 전달법 훈련 - I message와 You message 인식	· I-Message 전달법 연습 · 자기감정 표현하기	자기표현
8	가족과 친밀도 확인 - 가족을 생각하며 친밀도 표시	· 다문화 가족에 대해 생각하기 · 주변지지자원 확인하기	자기표현
9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 구분하기 - 긍정적 or 부정적인 감정 구분하기 색안경으로 세상 바라보기	· 긍정적 경험을 기억하기 · 다문화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기	자존감향상
10	미래 희망찾기 - 브로드웨이 손 만들기	· 긍정적인 피드백 경험 하기 · 다문화 청소년으로 자부심 느끼기	자기표현/ 희망감고취

여하기를 기대하여 프로그램 회기를 8회기에서 10회기로 연장하였다.

4단계는 프로그램 실시와 개선 단계이다. 3단계에서 확정된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29일까지 본 연구자 1인과 상담심리학 박사재학생 2인이 4개 중학교에 방문하여 4개 집단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집단상담자의 경험보고서 내용을 보완

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최종 프로그램은 표 1에 제시되었다.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N시 중학교 4곳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중학생 45명(남 21명, 여 24명)과 일반중학생 10명(남 4명, 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55명의 참여 중학생 중 남학생은 21

표 2. 집단별 집단참여자

집단	1	2	3	4	합계
다문화	11	10	10	10	41
일반	2	3	3	2	10
합계	13	13	13	12	51

명, 여학생은 30명이었다.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4인은 연구에서 배제되어 최종 41명이 포함되었으며, 자료 분석 시 일반중학생은 배제하고 다문화중학생만 포함시켰다. 집단구성원들은 한 집단에 12~13명씩 포함하여 총 4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아버지는 모두 한국 국적이며, 어머니 출신국가는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이었다. 다문화 청소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문화 청소년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하였고 1명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4살 때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어가 가능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참여자 모두 한국어 쓰기 능력과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다. 통제집단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중학생 42명(남 19명, 여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무 처치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달 후에 두 집단 모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상담 진행자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다. 진행자는 상담심리사 1급을 소지한 연구자와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박사과정 생 2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지침서를 작성하여 집단상담 진행자들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매회 프로그램 시작 전 집단상담 진행자들에게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점, 프로그램 내용, 준비물 등을 검토하였다. 집단상담 진행자는 매회기 종결 후 연구자에게 프로그램 진행 사항을 보고 한 후, 회기 과정상 문제나 어려움 등을 같이 논의하였다.

4.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증진하고자 연구자가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며, 상담심리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았다. 참여자가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력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 전체 구성은 표 1과 같으며 총 10회기로 구성되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내용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적응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력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 전체 구성은 표 1과 같이 총 10회기로 구성되었다. 1-2회기는 도입단계로 친밀감 형성과 관계성 형성 과정단계이다. 1회기는 별칭 짓기와 서약서를 작성하며 집단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2회기는 질문지 문항에 자기 생각을 적은 후 타인과의 교류작업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확인하며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3회기는 집단원들이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도록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사항을 종이에 적어 자랑 가방에 넣은 후,

자랑 가방에서 무작위로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주인공을 맞춰보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해본다. 4회기는 다문화 청소년으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감정카드에서 뽑아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다. 5회기는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풍선을 불게 한 후, 풍선에 행복한 얼굴을 그리게 한다.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기억들을 인식하는 경험을 갖는다. 6회기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자기주장을 표현하는 훈련과정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7회기는 나 전달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8회기는 다문화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주변 지인들과의 친밀도를 파악하며, 자기 지원 자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9회기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잊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양가감정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10회기는 자랑하고 싶은 장점과 특성을 이야기하며 다문화 청소년으로 자부심을 갖는 작업을 하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한다.

5.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검사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바탕으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 도구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분석을 위해 문항응답의

하위요인 별 합계를 사용하였다. 이때 부정 문항은 역 채점하여 사용하게 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자기표현 검사

자기표현 척도는 Rakos와 Schroeder(1980)가 제작한 자기표현 평정 척도를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우리 문화에 맞게 재구성한 자기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실시한 신뢰도는 .79이고, 본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응답방식은 표현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자기표현 평가척도 점수 분포는 20-100점이다. 자기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바람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6. 자료분석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처치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고, 집단과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Manchy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며 구형성가정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 자기표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에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사후검사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 비교)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사전, 사후, 추후검사에 대한 집단 내 차이 비교)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실시 전, 통

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사후검사에 나타난 집단 간 차이 검증

사후 검사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01.33, p < .05$). 자기표현 역시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291.75, p < .05$).

표 3.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변인	실험집단($n = 41$)		통제집단($n = 42$)		t
	M	SD	M	SD	
자아존중감	3.25	.42	3.36	.45	-1.20
자기표현	40.78	9.04	45.89	14.20	-1.94

표 4. 집단간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변인	변량원	SS	자유도	MS	F	p
자아존중감	공변량 (사전검사점수)	7.11	1	7.11		
	집단	8.84	1	8.84	301.33	< .001
	오차	2.35	80			
자기표현	공변량 (사전검사점수)	8066.24	1	8066.24		
	집단	6318.06	1	6318.06	291.75	< .001
	오차	1732.49	80			

3. 추수검사에 나타난 집단 간 차이 검증

표 5는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두 집단의 추수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공변량 분석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364.10, p < .05$). 자기표현 역시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354.75, p < .05$).

4. 집단내 사전-사후-추후검사 점수 비교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교하여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 효과는 훈련 1달 후에도 지속 될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집단 간(집단) $\times$ 집단 내(검사 시기)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집단과 검사 시기에 따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표 5. 집단간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추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변인	변량원	SS	자유도	MS	F	p
자아존중감	공변량 (사전검사점수)	7.70	1	7.70		
	집단	4.95	1	4.95	364.09	.000
	오차	1.69	80	.02		
자기표현	공변량 (사전검사점수)	8219.27	1	8219.27		
	집단	4499.83	1	4499.83	354.75	.000
	오차	1853.52	83			

표 6.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반복측정 분석

하위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자아존중감	집단간A(집단)	2855.33	1	2855.33	7391.11***
	집단내 B(검사시기)	.98	2	.54	25.72***
	상호작용A*B	5.47	2	3.03	143.96***
자기표현	집단간A(집단)	494107.03	1	494107.03	1347.35***
	집단내 B(검사시기)	256.30	2	154.76	12.205***
	상호작용A*B	4211.74	1.66	2543.21	200.56***

*** $p < .001$.

표 7.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집단별 검사 시기에 따른 사후검증

하위영역	집단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평균차	평균차	평균차
자아존중감	실험	-11.83 ^{***}	-9.10 ^{***}	2.73 ^{***}
	통제	6.86	6.77	-.10
자기표현	실험	-.50 ^{***}	-.37 ^{***}	.13 ^{***}
	통제	.20	.160	-.04

*** $p < .001$.

있었다.

실험집단에서 실시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에 미친 효과를 검사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은 사전-사후 검사, 사전-추후검사, 사후-추후 검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다문화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과정을 위해 김창대(2002)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선택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모형 변창진(1994), 박인우(1996), Sussman(2001)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 장점을 통합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김창대, 2002). 1단계는 프로그램 기획과 요구조사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측면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이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시 요구사항은 일반청소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 요구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기대하였다. 2단계는 ‘1단계’ 요구내용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관련 이론적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단계는 예비연구 진행과 프로그램 내용 자문 후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사항은 참여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8회기 프로그램을 10회기 프로그램으로 수정 하였으며, 4단계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최종적으로 개발된 적응유연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인 수정사항은 프로그램 시작 시 긴장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많이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단계에 따라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선행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프로그램 효과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자기표현 능력 향상을 통한 적응 유연성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이 같은 프로그램 목표가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 모두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검사 시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 자녀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김미선(2009), 손혜진(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표현이 연습을 통해 증가한다는 송소원과 연문희(2008) 연구결과와 집단상담 개입이 자기표현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하승민과 고미옥(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 연구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다문화 초등학교 아동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고홍월 외, 2010; 김미선, 2009; 김수인, 2010; 김종운, 박춘자, 2011)들이 대부분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선, 2008; 김영자, 2012)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김명선(2008) 프로그램은 요구조사 없이 구안되었고 효과검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김영자(2012)는 김명선(2008)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나 추후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후조사까지 진행하였다는 측면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피드백은 참여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기표현 방법을 배운 경험이 없었던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자기표현 연습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이 함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은 공통의 관심사가 많고 경험하는 문제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끼리 고민을 토로하며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강진령, 2004). 위험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들도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잘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긍정적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는 힘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다문화 담당 교사, 다문화 자녀를 둔 부모, 다문화 청소년 모두 프로그램 참여시 다문화 청소년

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박은민, 2013). 따라서 본 프로그램 진행시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함께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일반 청소년이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집단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모델링 역할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 중 보편성, 대인관계 학습, 사회화 기법 발달, 모델링 등(Corey, 1995)이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모델링을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사회화 기법 연습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 향상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은 체계적 개발 모형 절차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이며, 내용이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효과검증을 하였다. 둘째,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효과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후속연

구를 위한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회기 시간이 50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10명이 넘는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집단 역동성과 집단 참여도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 회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에 포함된 다문화 청소년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대상으로 언어적 측면의 어려움이 없었으며 고민하는 것이 한국청소년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이들과 다른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타국에서 성장한 후 중도 입국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프로그램 효과 검증 시 양적, 질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효과검증을 하여 좀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진령 (2004).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1), 81-90.
- 고홍월, 황매향, 강유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연구, 18(2), 71-84.
- 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문화가정 현황 보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3). 다문화학생 현황 자료. <http://kess.kedi.re.kr/index>에서 인출.

- 권일남, 김영철 (2006).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4(2), 33-43.
- 국민일보 (2014.10.12). 다문화가정 학생 수, 올 처음 전체 학생 수 1% 돌파. [http://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92373&code=11131300&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92373&code=11131300&cp=nv)에서 2015년 1월 10일 인출.
- 김명선 (2008).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 (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승 (2002). 적응유연성이 비행청소년의 일상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인 (20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8).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언숙 (2008). 자기표현훈련이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2012).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춘, 이관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기능,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1), 21-38.
- 김종운, 박춘자 (2011).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북아 문화연구, 27(1), 41-59.
- 김진아, 안귀여루 (2010). 스트레스에 처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연성의 역할.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27-43.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 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8-159.
- 박은민 (2013).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시각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3), 1-21.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1.
- 변창진, 김성희 (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1), 51-85.
- 손혜진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소원, 연문희 (2008). 대학생의 자기표현향상 집단상담을 통한 변화경험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9(4), 1641-1663.
- 안권순 (2009). 다문화청소년의 건전 육성 방안. 청소년학연구, 16(7), 99-126.
- 양계민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 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김보영 (2010).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9(4), 400-410.
- 이정우 (2012). 청소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293-314.
- 임미경 (2006). 자기표현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모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정해영, 정옥분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77-297.
- 정행준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통계청 (2013). 전국다문화실태조사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I_1001300721&vw_cd=MT_ZTITLE&list_id=154_11779_10_00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인출.
- 하선경 (2006).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승민, 고미옥 (2011).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표현과 미술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2), 21-39.
- 홍정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여정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4(1), 205-22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Jossey-Bass.
- Corey, G. (1995).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준, 조현제, 문지혜, 이근배, 홍영근(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1995).

-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logy* (pp. 213-323). New York: Pergamon press.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to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Rakos, R. F., & Schroeder, H. E. (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s.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pp. 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1 차원고접수 : 2015. 01. 19.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The Effect of the Multicultural Youth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Park, Eun-mi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nd to develop a resilience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youth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is study followed Kim Changdae's (2002)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models.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forty-on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forty-two middle school students. Group counseling was conducted divided into four groups. The resilience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consisted of 10 sessions were conducted throughout the 50 minutes twice a week for each session. The researcher interviewed and carried out the independent *t*-tests and conducted the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ANOV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ilience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self-express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However, the results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self-expression for the control group. Therefore, resilience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articipants'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Keywords: multicultural youths,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self-esteem, self-expression